

혁신없는 아이폰 브랜드 파워 건재... 못 말리는 '애플빠'

갤럭시 보편화된 통화녹음, 아이폰16은 연내 이용 가능 디자인도 이전 모델과 달라진 것 없는데 1차 물량 매진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16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에도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부재와 혁신의 부재가 지적받아도 애플의 브랜드 파워는 굳건하다는 평가다.

22일 오후 16일 명동에 위치한 애플스토어를 찾았다. 주말을 맞아 새로운 아이폰을 체험하기 위한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아이폰16는 역대 최초로 한국을 1차 출시국에 포함하며 국내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핵심이 되는 인공지능(AI)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이 알려지며 비판받았다.

또한 갤럭시에서는 가능하고 아이폰에서는 불가능한 대표적인 기능이었던 통화 녹음 역시 아이폰16에서 도입됐으나 구입 직후에는 사용할 수 없고 연내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디자인 면에서도 이전 모델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어 기기를 변경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애플스토어에서 실제 아이폰16를 체험해 봤다. 우측 하단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로 빠르게 카메라를 켤 수 있는 점과 다채로운 촬영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인상적이었으나 애플 인텔리전스는 향후 업데이트 될 것이라는 안내만 나오는 등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적었다.

애플스토어를 찾은 소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결과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애플스토어를 찾은 한 소비자는 "아이폰 16 프로를 구하기 위해 재고가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다니고 있다"며 "주말에는 재고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하지만 최대한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새 기종을 많이 기대했는데 기대한 만큼은 아니어서 솔직히 마음이 좀 식었다"며 "기기 변경 안 하다가 아이폰 17이 나왔을 때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이폰16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나 아이폰의 국내 인기는 여전히 건재하다. 아이폰 16 한국 1차 물량이 사전 예약 하루 만에 소진됐으며 아이폰16 출시일 애플스토어 매장이 문을 열기 전에 소비자



애플의 첫 인공지능(AI) 스마트폰 '아이폰16 시리즈'가 국내에 출시된 2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시민들이 구매를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들이 줄을 서는 '오픈런' 행렬이 이어졌다. 여기에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아이폰16 프로가 신제품과 거의 같은 가격에 거래되는 등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CIR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아이폰을 구매한 고객의 75%는 기존에 사용하던 기종이 오래됐거나 분실·손상·도난으로 교체했다고 응답했다.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아이폰을 쓰다가 때가 되면 새로운 아이폰을 구입하는 고객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온디바이스 AI가 스마트폰 업계의 뜨거운 트렌드로 떠오른 가운데 애플의 AI 도입 시기가 늦어지며 'AI 지각생'이라는 평가도 있었으나 국내 시장에서는 애플 충성고객의 힘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스마트폰에 AI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AI가 스마트폰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기대도 많았으나 기술적 진보보다 중요한 것은 브랜드 가치다"며 "아이폰 16이 이례적으로 흥행에 성공한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SK은, 美 공장서 현대차 탑재 배터리 양산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자회사 SK은이 10월부터 미국 공장을 통해 현대자동차 전기차에 탑재될 배터리를 양산하기로 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은 미국 법인 SK 배터리아메리카(SKBA)는 내달부터 조지아주 공장서 현대차에 들어갈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K은은 미국 완성차업체 포드에 공급되는 배터리를 양산하던 생산 라인 일부를 현대차용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 혜택이 필요한 현대차와 공장 가동률 제고가 필요한 SK은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다.

라인 전환에 따라 조지아주 공장의 가동률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 서버너에 대규모 전기차 전

용 생산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가동할 예정이다.

조지아주 2공장의 연간 배터리 생산 규모는 11.7기가와트시(GWh)다. SK은은 이와 별도로 현대차와 내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조지아 합작공장(35GWh)도 건설하고 있다.

SK은의 올해 상반기 평균 공장 가동률은 53%에 불과하다.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Chasm)으로 가동률을 조정하면서다. 지난해엔 공장의 평균 가동률이 87.8%였다.

이번 라인 전환으로 가동률을 크게 올리고 수익성도 개선할 수 있을지 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SK은은 2분기 매출 1조5535억 원 영업손실 4601억 원을 냈다. 3

년째 적자 상황을 이어 가고 있는 것이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MS, 부산에 두 번째 데이터 센터 준공

첫 번째 센터 이후 4년 만 AI 클라우드 센터도 추진

마이크로소프트가 부산에 두 번째 데이터센터 건설을 완료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부산시는 이후에도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두 번째 데이터센터 준공식이 강서구 구랑동에 서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준공식은 두 번째 데이터센터의 완공을 기념하고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클라우드용 데이터센터의 건립 추진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보기술(IT) 관련 대규모 투자 외국인 기업으로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내 아시아지역 대표 데이터센터를 건립 중이다. 2020년 4월 부산 국제산업물류센터 내 첫 번째 데이터

센터 준공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첫 번째 데이터센터보다 더 큰 규모의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오늘 준공한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앨빈 형 마이크로소프트사 아태지역 총괄사장을 비롯해 김도읍 부산 북구강서구를 국회의원고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산업통상자원부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한편 부산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세 번째 인공지능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건립을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입주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 건립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국가유상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도 부산을 아시아지역의 주요 거점으로 인식하고 부산시의 노력을 신뢰해 데이터센터의 추가 확장을 추진 중이다. 또한 데이터센터 건립을 통한 지역사회 고용 창출과 고급 정보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실습 사원제 인턴십 등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앨빈 형 마이크로소프트 아태지역 데이터센터 총괄사장은 "부산시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데이터센터를 완공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역사회의 번영과 복지를 증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글로벌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세무 패밀리 오피스 (TFO) 모집

법인컨설팅의 명가 '피플라이프'에서 기업컨설팅을 같이 할 파트너 세무사 단체 및 개인 세무사를 초빙합니다

| | |
|-----------------------------------|--|
| TFO (Tax Family Office) | 당사 기준조직 및 시스템과 세무사의 결합으로 Win-Win 관계를 형성하고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최고의 세무패밀리오피스 네트워크 구축 |
|-----------------------------------|--|

- 대상 : 단체 (세무사회 및 세무법인), 개인세무사
- 담당업무 : 기업경영 리스크 컨설팅 / 절세설계
- 특전사항
 1. 위촉축하금 : 100만원 (설계사 등록 시 1회 지급)
 2. 연구개발비 선지원 : 1~6차월 : 매월 50만원 (회정지급)
7차월 이후 : 매월 10~50만원 (매 분기 업적평가 후 차등지급)
 3. 성과수수료 및 유지수수료 : 당사 FA들과 동일

피플라이프
검색
📞
02-6909-2036

피플라이프는 국내 최초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시스템 개발 17년 업력의 법인컨설팅 노하우 및 분업화, 컨설팅, 네트워킹, 교육시스템 등 4대 경쟁력을 보유한 명실상부 최고의 중견·중소기업 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피플라이프

넷마블 '게임소통 포럼' 학생·부모 참가자 모집

넷마블이 건강한 게임문화 확산을 위한 소통 포럼을 개최한다. 넷마블문화재단은 23일 제1회 '게임소통 포럼'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2016년부터 시작된 넷마블 게임소통학교 사업은 건강한 가족 게임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게임의 특성 및 활용 방법을 알리고 가족 간의 소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넷마블문화재단은 올해부터 그동안의 노하우를 토대로 학부모들에게 심도 있는 게임 소통 방법을 전달하기 위해 기존 3단계 과정으로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게임 소통학교'와 '함께하는 게임 소통학교'로 과정으로 재편했다.

이중 '함께하는 게임 소통학교'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포럼과 '찾아가는 게임 소통학교'에 참여한 양육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이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10월19일 넷마블 지타워에서 진행되며 정은준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메타버스·AI 시대의 게임 공간과 과몰입 소통 안에서 해법 찾기'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넷마블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10월5일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 결과는 별도로 안내된다.

한편 넷마블문화재단은 2018년 건강한 게임문화의 가치 확대 및 미래 창의 인재 양성과 나눔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출범했으며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